

낮선 어둠, 그리고 미스터리... 나만의 이야기를 찾다

호화 '검은 기둥의 감각' 전시회

호반문화재단 'H아트랩' 2기
박관우·신선주·이연숙작 소개
“관객 스스로 작품 해석할 기회”

전시장을 찾는 관객은 일단 망설이게 된다. ‘혹시 오늘 전시장 여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도 일반 전시장과 달리 빛의 조도가 낮아 발걸음을 옮기기 쉽지 않다. 어두운 공간 속에 비정형으로 놓인 작품들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관객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쳐 나가게 한다.

호반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 2기 결과 보고전인 '검은 기둥의 감각' 전시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 아트스페이스 호화에서 열렸다. H아트랩은 예술가와 미술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교류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서



① 호반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 2기 입주 작가들의 결과 보고 전시회 '검은 기둥의 감각'이 오는 3월 12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 아트스페이스 호화에서 열린다. ② 이연숙 '검은 망각의 묘약을 위하여'(2023). 박관우 '달콤한 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2022). 네 종류의 인터뷰 영상, 네온사인.

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입주한 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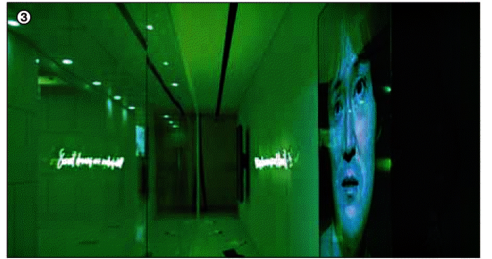
미술 이론가인 고운정이 기획한 '검은 기둥의 감각'에서는 H아트랩 입주 작가 박관우, 신선주, 이연숙 3명의 설치미술과 회화 작품 5점이 전시된다. 전시 제목처럼 어둠 속에 작품들이 어기저기 놓여 있어 관객들은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느낌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물건이나 그림, 조각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관객 각자가 전시품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전시를 기획한 고운정은 “이번 '검은 기둥의 감각'은 공간과 오래된 물건, 반사되는 거울 속 또 다른 설정으로 어떤 사건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목직함 중압감에 짓눌려 누군가

의 시선이 느껴지는 미스터리로 보이는 전시”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조소를 전공한 박관우 작가는 믿음과 실재에 관한 오랜 질문들을 퍼포먼스와 설치, 관객 참여형 작업 등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신선주 작가는 다소 단순해 보이는 흑백의 대조로 익숙한 도심의 건축물들을 극사실적 회화로 표현해 그림과 사진적 요소가 공존하는 방식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



다. 이 때문에 중국 베이징의 공장, 미국 뉴욕의 소방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모습은 익숙하지만 극도로 조용하고 단순한 느낌을 줘 빅토르 시를 읽스키가 이야기한 '낯설게 하기'를 느낄 수 있다. 이연숙 작가는 일상의 경험과 장소의 기억, 인식 변화를 주제로 도시에서 가깝게 경험하지 못한 장소들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공간 설치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3명

의 작가는 자신이 해 오던 기존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아트스페이스 호화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 스스로 단서를 찾아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미스터리를 읽거나 퍼즐을 푸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유용하 기자